

---

# 부록

1. 한국은행 개요	117
2.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의결 및 논의사항	127
3. 경제일지	159
4. 부문별 담당 부서 및 집필자	166



# 1. 한국은행 개요

## (1) 연혁 및 설립목적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광복 이후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제 혼란 속에서 통화 가치의 안정, 은행·신용제도의 건전화 및 국가 경제발전 등을 목적으로 1950년 5월 5일 제정된 「한국은행법」에 근거하여 같은 해 6월 12일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에는 정부가 자본금 15억 원을 전액 출자한 법인이었으나, 1962년 제1차 「한국은행법」 개정 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제정 당시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외환에 관한 정책을 수립 집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1962년에는 정부주도 성장정책을 원활히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개칭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정부 추천위원의 수가 크게 늘었다. 또한 외환정책 수립 및 외환관리 기능의 대부분이 정부로 이관되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금융자유화 추진과 더불어 물가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및 독립성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1997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은행법」이 개정되었다. 1997년 개정 시 물가안정목표제가 도입되었으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명칭이 금융통화위원회로 환원되고 위원들은 모두 상근하도록 바뀌었다. 또한 재정경제원 장관이 겸임하던 의장직을 한국은행 총재가 맡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자율성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전까지 담당했던 은행감독 기능은 신설된 통합 금융감독기구로 이관되었다. 2003년 개정 시에는 물가안정목표제를

그림 부록- 1. 최초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장면 (1950년 6월 5일)



자료: 한국은행

중기적 시계에서 운용하도록 변경하였으며, 한국은행에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총괄 및 감시 기능을 부여하였다. 또한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정부의 사전승인 대상 예산 범위는 종전의 경비예산에서 급여성 경비로 축소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불안 발생을 예방하고 금융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논의가 확산되었다. 그 결과 2011년 「한국은행법」이 개정되었으며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물가안정이 통화신용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의 기본적인 목표라는 점과 함께 금융안정도 책무라는 점을 밝혔다. 한편 2012년 개정 시에는 한국은행 총재를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일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하 금융통화위원)의 임기를 조정함으로써 위원의 임기가 서로 엇갈리도록 하는 교차임기제<sup>212)</sup>가 도입되고 한국은행의 통계·경제조사 관련 자료요구 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도록 「한국은행법」이 개정되었다.

## 그림 부록- 2.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현장



자료: 한국은행

212) 법 개정 후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장이 최초로 추천하는 위원의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조정(부칙에 명시)하고, 임기교차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전임(前任) 위원의 임기만으로 즉시 임명되지 않은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만으로 직후 개시되도록 하였다.

## (2) 조직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 및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금융통화위원회와 총재, 부총재, 부총재보, 본부부서, 지역본부 등으로 구성된 집행기관, 그리고 한국은행의 업무를 상시 감사하는 감사로 구성되어 있다.

### 가. 금융통화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로서 통화신용정책과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 그리고 임명직 위원 5인 등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5인의 임명직 위원은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추천기관<sup>213)</sup>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전원 상근<sup>214)</sup>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한국은행 부총재(3년)를 제외하고는 모두 4년이며<sup>215)216)</sup> 연임할 수 있다<sup>217)</sup>.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한다. 의장은 금융통화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그림 부록- 3.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명단 (2022년 12월 31일 현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2022년 4월 21일~)  
<주요경력>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  
ADB 수석 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조윤제**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 2020년 4월 21일~)  
<주요경력>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대통령 경제보좌관  
IMF-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서영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2020년 4월 21일~)  
<주요경력>  
대한상공회의소 SGI 원장  
한국은행 부총재보  
한국은행 금융시장부장



**주상영**  
(금융위원회 위원장 추천, 2020년 4월 21일~)  
<주요경력>  
건국대학교 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2020년 8월 21일~)  
<주요경력>  
한국은행 부총재보  
한국은행 국제국장  
한국은행 공보관



**박기영**  
(한국은행 총재 추천, 2021년 10월 6일~)  
<주요경력>  
연세대학교 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메릴랜드대학 볼티모어 카운티 조교수



**신성환**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추천, 2022년 7월 28일~)  
<주요경력>  
홍익대학교 교수  
한국금융학회 회장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자료: 한국은행

213)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및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한다.

214) 1997년 12월 31일 「한국은행법」 개정(1998년 4월 1일 시행) 시 통화정책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종래 비상근이던 임명직 위원의 근무형태를 전원 상근으로 변경하였다.

215) 2020년 4월 임명직 위원 4인의 임기가 시작되었는데, 이 가운데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여 임명된 2인의 위원은 일회성으로 3년의 임기가 적용된다. 이는 위원의 임기가 서로 교차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216) 2021년 10월 6일 임기를 시작한 박기영 위원의 경우 전임 고승범 위원(3년 임기)의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217) 총재와 부총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결정, 한국은행권 발행, 여수신정책, 공개시장운영, 지급결제, 금융기관 검사 등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은 물론 예산 및 결산, 조직 및 기구, 보수기준 등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한다. 의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어진다.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된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2022년 중 정기회의 24회, 임시회의 1회 등 본회의를 25회 개최하였다. 또한 금융경제상황에 대한 위원 간 의견 교환, 주요 현안 토의 및 본회의 상정안건 사전심의 등을 위해 위원협의회를 88회 열었으며, 예산 및 결산안의 심의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14회 개최하였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해 정기회의 개최일자를 사전에 보도자료로 공표하고 있다. 연간 총 24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는데, 이 가운데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를 8회,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4회 개최한다. 한편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의사록으로 작성·보관하고 있다. 이 중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의사록은 통화신용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의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화요일에 공개하고 있다.

표 부록- 1.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회)

연도	본회의	정기		위원 협의회	심의 위원회	계
		정기	임시			
2020	28	24	4	87	16	131
2021	26	24	2	85	15	126
2022	25	24	1	88	14	127

자료: 한국은행

## 나. 집행간부 및 감사

한국은행은 집행간부로서 총재, 부총재 및 부총재보 5인을 두고 있다.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 인사청문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부총재는 총재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으로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통화신용정책을 집행하며, 한국은행의 대표로서 「한국은행법」 등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다. 또한 금융통화위원회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수시로 통보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을 제공할 의무도 지닌다. 현 이창용 총재는 2022년 4월 21일 임명되었다.

부총재는 금융통화위원으로 총재와 함께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함과 아울러 한국은행 업무 전반에 걸쳐 총재의 직무수행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총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총재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총재보는 총재가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총재와 부총재를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한국은행은 감사 1인을 두고 있다. 감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감사는 한국은행의 업무

를 상시 감사하여 그 결과를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다.

**그림 부록- 4. 집행간부 및 감사 명단**  
(2022년 12월 31일 현재)



**총재**  
**이창웅**  
(2022년 4월 21일~)



**부총재**  
**이승헌**  
(2020년 8월 21일~)



**부총재보**  
**이환석**  
(2020년 3월 9일~)



**부총재보**  
**민좌홍**  
(2021년 5월 17일~)



**부총재보**  
**이종렬**  
(2022년 7월 20일~)



**감사**  
**강승준**  
(2021년 9월 10일~)

자료: 한국은행

**다. 부서조직 및 소관업무**

2022년 말 현재 한국은행은 본부에 17개 부서(13국 1실 3원)와 10개 국소속실, 1본부를 두고 있으며 그 하부조직으로 21개 부와 147개 팀(6개 연구실 포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본부는 서울과 지방에 16개를 두고 그 하부조직으로 7개 기획조사부와 54개 팀을 두고 있으며 해외에는 5개 국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2022년 말 현재 직원수는 2,364명<sup>218)</sup>이다.

각 부서의 주요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기획협력국**

기획협력국은 경영전략 수립 및 추진, 운영리스크 관리, 대외협력, 조직 및 인력관리, 예산편성 및 결산, 부서 간 업무 조정·통합, 지역본부 및 국외사무소 업무활동 조정 및 종합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관리, 법규 검토, 디지털 혁신, 윤리경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커뮤니케이션국**

커뮤니케이션국은 대내외 의견수렴 등 커뮤니케이션 활동 조정·통합, 화폐박물관 운영 등 홍보활동, 정보자료 관리, 연차보고서 작성, 대국민 경제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IT전략국**

IT전략국은 전산업무의 기획, 전산시스템의

218)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부총재 포함), 집행간부 및 감사 등 13명을 제외한 인원이다.

개발 및 운영, 전산기기의 도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인사경영국

인사경영국은 인적자원 관리, 급여 및 복리후생 업무와 부동산 및 시설 관리, 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은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한다.

### 조사국

조사국은 거시경제 동향분석 및 전망, 산업동향 분석 및 산업정책 관련 조사연구, 고용관련 분석 및 전망, 물가안정목표 설정 및 조사연구, 계량모형 개발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국제경제 동향분석 및 전망, 지역조사연구 지원 등에 관한 업무도 담당한다.

### 경제통계국

경제통계국은 국민소득, 통화금융, 국제수지, 물가, 자금순환표, 산업연관표, 기업경영분석 등 경제통계의 편제, 분석 및 개발과 함께 통계품질평가, ECOS(경제통계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금융안정국

금융안정국은 금융안정상황 분석·종합평가, 시스템리스크 측정·분석 및 모형 개발, 거시건

전성정책 수단 및 파급경로 분석, 은행 및 비은행 관련 조사연구, 금융제도 관련 조사연구, 금융안정보고서 작성,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기후리스크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금융기관 경영분석 및 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통화정책국

통화정책국은 통화신용정책의 입안, 정책수단 기획 및 운용, 통화신용정책 여건 및 효과 분석, 통화신용정책 관련 현안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수립,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금융시장국

금융시장국은 통화신용정책의 집행, 통화·금리 분석 및 전망, 금융시장 및 기업금융 동향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금융결제국

금융결제국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 및 감시, 지급결제제도 관련 조사연구, 전자금융관련 기획 및 조사, 금융정보화 추진, 디지털화폐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여수신 및 국고, 증권, 기금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발권국

발권국은 화폐의 발행과 유통·관리, 화폐 및 발권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발권업무 기계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국제국

국제국은 외환·국제금융에 관한 기획·조사·분석, 외환시장 및 환율 관련 업무, 보유외환 및 외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외국환 거래 신고 및 사후관리, 외환거래에 관한 모니터링 및 검사, 외환전산망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국제협력국

국제협력국은 국제협력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국제금융기구 및 중앙은행 등과의 교류 및 금융·지식 협력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외자운용원

외자운용원은 보유 외화자산 운용 기획, 국외 운용 및 리스크 관리, 운용성과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경제연구원

경제연구원은 통화금융, 금융제도, 국제금융 및 무역, 거시경제, 산업, 노동, 북한경제에 관한 중장기적인 연구와 대외 연구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감사실

감사실은 한국은행 업무에 대한 감사 업무를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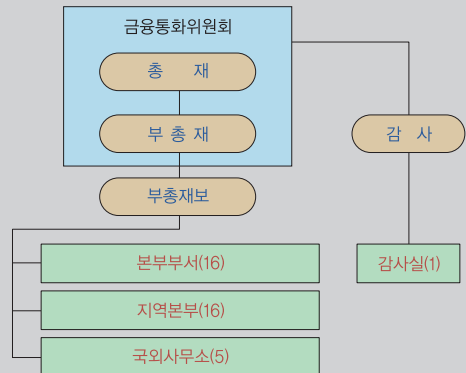
## 지역본부

지역본부는 지역경제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와 함께 화폐 수급, 국고금 수납, 증권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국외사무소

국외사무소는 주재국 및 인근 관심 국가의 금융경제에 관한 조사와 정보수집, 외화자산의 국외운용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그림 부록- 5. 조직 구성



자료: 한국은행

라. 한국은행조직도표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 1) 부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 대전세종충남, 강원, 인천, 제주, 경기, 경남, 강남본부 2)부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강원, 제주, 경기본부 3)

력반), 운영리스크팀, 대외협력팀, 조직관리팀, 예산회계팀	
규팀	
신기술반, 통합데이터플랫폼구축반), 데이터서비스팀(데이터관리반)	
상담반)	
팀(정보자료반), 커뮤니케이션운영팀(사료반), 뉴미디어팀, 화폐박물관팀	
제교육운영팀	
IT지원반), IT리스크팀, 정보보호팀), IT운영부(회계시스템팀, 결제시스템팀(표준전문개발반), 경영시스템팀, 정책시스템팀), 서버팀, 정보서버팀, 네트워크팀)	
원반), 인사운영팀, 급여후생팀, 노사협력팀, 재무운영팀	
전관리반), 시설운영팀, 조달관리팀	
영팀	
영팀, 연수지원팀, 교수팀	
석팀, 거시재정팀, 국제무역팀, 고용분석팀, 물가분석부(물가동향팀, 물가연구팀), 거시모형부(전망모형팀, 모형연구팀), 합팀, 미국유럽경제팀, 아태경제팀, 중국경제팀), 지역경제부(지역연구지원팀, 지역경제조사팀)	
구반), 통계조사팀, 통계정보팀, 금융통계부(금융통계팀, 자금순환팀, 국제수지팀, 국외투자통계팀, 기업통계팀), 특총괄팀(분배국민소득반), 지출국민소득팀, 투입산출팀, 국민B/S팀, 물가통계팀)	
리스크팀, 안정분석팀, 금융규제팀, 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 비은행분석팀), 금융안정연구부(금융안정연구팀(기후리스크연구팀)	
행1팀, 일반은행2팀, 특수은행팀, 인터넷전문은행팀	
획팀, 정책분석팀, 정책협력팀, 정책연구부(통화신용연구팀, 정책제도연구팀)	
영팀, 자금시장팀, 금융시장연구팀, 자본시장부(채권시장팀, 주식시장팀)	
제협력반, 지급결제개선반), 결제연구팀, 결제운영팀, 결제업무팀, 결제감시부(결제안정팀, 결제리스크팀), 용기획팀, 전자금융조사팀, 디지털화폐연구팀(기술반, 디지털화폐동향분석반)	
커스터디반)	
획팀(화폐수급시설개선반), 화폐수급팀, 화폐관리1팀, 화폐관리2팀, 화폐연구팀	
팀, 외환시장팀, 국제금융부(자본이동분석팀(외환분석체계개선반), 국제금융연구팀), 외환업무부(외환심사팀, 외환건전성조사팀, 외환정보팀)	
크푸르트, 동경, 런던, 북경(홍콩, 상해)	
구반), 국제기구팀, 지역기구팀, 금융협력팀, 교류협력부(대외교류팀, 지식협력팀)	
획팀, 리스크관리팀, 위탁1팀, 위탁2팀), 투자운용부(운용전략팀, 정부채1팀, 정부채2팀, 회사채팀, 자산유동화채팀), 제팀(담보관리반), 외자시스템팀)	
화연구실, 국제경제연구실, 거시경제연구실, 미시제도연구실, 북한경제연구실	
대전세종충남, 충북, 강원, 인천,	총무팀 <sup>1)</sup> , 기획조사부(기획금융팀, 경제조사팀 <sup>2)</sup> , 기획조사팀 <sup>3)</sup> , 업무팀, 화폐관리팀 <sup>4)</sup>
력반), 경영관리감사팀, 정책현업감사팀, 외환국제감사팀, 조사통계감사팀, 전산정보감사팀	



## 2.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의결 및 논의사항

### 차례

#### (1) 통화신용정책 방향

◇ 통화정책방향 (2022년 1월 14일)	129
◇ 통화정책방향 (2022년 2월 24일)	130
◇ 통화정책방향 (2022년 4월 14일)	130
◇ 통화정책방향 (2022년 5월 26일)	131
◇ 통화정책방향 (2022년 7월 13일)	132
◇ 통화정책방향 (2022년 8월 25일)	133
◇ 통화정책방향 (2022년 10월 12일)	134
◇ 통화정책방향 (2022년 11월 24일)	135
◇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2022년 12월 22일)	136

#### (2) 통화신용정책 의사록 전문 144

◇ 2022년도 제1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2022년 1월 14일)	
◇ 2022년도 제4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2022년 2월 24일)	
◇ 2022년도 제7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22년 4월 14일)	
◇ 2022년도 제10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2022년 5월 26일)	
◇ 2022년도 제13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2022년 7월 13일)	
◇ 2022년도 제16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2022년 8월 25일)	
◇ 2022년도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2022년 10월 12일)	
◇ 2022년도 제22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2022년 11월 24일)	

#### (3) 통화신용정책업무 주요 내용

◇ 2022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 결정(2022년 1월 14일)	145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결정(2022년 3월 24일)	145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 개정(2022년 4월 14일)	146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 개정(2022년 5월 26일)	146

◇ 회사채·CP 매입기구에 대한 제1회 대출금 재대출(만기 연장) 실시(2022년 6월 22일)	146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 개정(2022년 7월 13일)	147
◇ 「공개시장운영규정」 개정(2022년 7월 28일)	147
◇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기념주화 발행(2022년 8월 11일)	147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 개정(2022년 8월 25일)	148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 개정(2022년 10월 12일)	148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2022년 10월 27일)	149
◇ 「공개시장운영규정」 개정(2022년 10월 27일)	149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2022년 10월 27일)	149
◇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22년 11월 10일)	150
◇ 누리호 발사 성공 기념주화 발행(2022년 11월 10일)	150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 개정(2022년 11월 24일)	151
◇ 회사채·CP 매입기구에 대한 제2회 대출금 재대출(만기 연장) 실시(2022년 12월 22일)	151

#### (4) 금융안정회의 주요 내용

◇ 「금융안정 상황점검」 주요 논의 내용 (2022년 3월 24일)	153
◇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주요 논의 내용 (2022년 6월 22일)	153
◇ 「금융안정 상황점검」 주요 논의 내용 (2022년 9월 22일)	155
◇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12월)」 주요 논의 내용 (2022년 12월 22일)	156

#### (5) 금융안정회의 의사록 전문

158

◇ 2022년도 제6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22년 3월 24일)
◇ 2022년도 제12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22년 6월 22일)
◇ 2022년도 제18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22년 9월 22일)
◇ 2022년도 제24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22년 12월 22일)

## (1) 통화신용정책 방향

### ◇ 통화정책방향

(2022년 1월 14일, 제1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식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00%에서 1.25%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신규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지 않으면서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전개 상황 및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따라 주요국 국제금리와 주가가 하락 후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 전개와 백신 보급 상황, 글로벌 인플레이션 움직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에도 회복세를 지속하였다. 민간소비의 회복 흐름이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주춤하였으나, 수출은 견조한 글로벌 수요에 힘입어 호조를 지속하였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공급차질에 영향받아 다소 조정되었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개선세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의 견실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민간소비 회복 흐름이 재개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중 GDP성장률은 지난 11월에 전망한 대로 3%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 가격의 높은 오름세 지속, 석유류제외 공업제품 및 개인서비스 가격의 상승폭 확대 등으로 3%대 후

반으로 높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2%대 초반 수준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후반 수준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월 전망 경로를 상회하여 상당기간 3%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연간으로는 2%대 중반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금년 중 2%를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시장에서는 장기시장금리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하락하였다가 미 국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반등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전망 등으로 상당폭 상승하였다가 반락하였으며, 주가는 소폭 하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주택 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 ◇ 통화정책방향 (2022년 2월 24일, 제4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지 않으면서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주요국 국제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주가는 상당폭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 전개 상황, 글로벌 인플레이션 움직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에도 회복세를 지속하였다. 민간소비의 회복 흐름이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주춤하였으나, 수출은 견조한 글로벌 수요에 힘입어 호조를 지속하였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공급차질에 영향받아 다소 조정되었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개선세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의 견실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민간소비 회복 흐름이 점차 재개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중 GDP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치인 3%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의 높은 오름세 지속, 개인서비스 및 공업제품 가격의 상승폭 확대 등으로 3%대 중후반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으며,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2%대 중반으로 높아졌다.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후반 수준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월 전망경로보다 높아져 상당기간 3%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이며, 연간으로는 3%대 초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금년중 2%대 중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움직임 등에 영향받아 장기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주가가 상당폭 하락하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성장·물가의 흐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 ◇ 통화정책방향 (2022년 4월 14일, 제7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에서 1.50%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가속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주요국 국채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미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었다. 주가는 상당폭 하락하였다가 반등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방역조치 완화 등에 힘입어 회복 흐름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전개 상황, 글로벌 인플레이션 움직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회복세를 이어갔다. 설비투자가 글로벌 공급차질에 영향받아 조정되었지만,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였고 민간소비는 회복 흐름이 주춤하였다가 최근 방역조치 완화 등의 영향으로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고용 상황은 큰 폭의 취업자수 증가가 이어지는 등 개선세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일부 영향받겠지만 수출이 여전히 견실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민간소비도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중 GDP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3%)를 다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의 큰 폭 상승, 공업제품 및 개인서비스 가격의 오름세 확대 등으로 4%대 초반으로 크게 높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과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모두 2%대 후반으로 상승하였다.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4%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금년중 상승률도 2월 전망치(3.1%)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상당기간 3% 내외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움직임 등에 영향받아 장기시장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큰 폭 상승하였고, 주가는 상당폭 등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소폭 감소하고 주택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성장·물가 흐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 ◇ 통화정책방향 (2022년 5월 26일, 제10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50%에서 1.75%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조치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요국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미 달러화가 상당폭 강세를 나타내었다. 주가는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되면서 큰 폭 하락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움직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의 방역조치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회복세를 이어갔다. 설비투자가 글로벌 공급차질에 영향받아 조정을 지속하고 수출이 둔화되었지만, 민간소비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의 영향으로 빠르게 회복되었다. 고용 상황은 큰 폭의 취업자수 증가가 이어지는 등 개선세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성장세 둔화로 수출 증가세가 낮아지겠지만 민간소비 개선에 힘입어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중 GDP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3.0%)를 다소 하회하는 2%대 후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공업제품 가격의 상승폭 확대, 개인서비스 가격의 높은 오름세 지속, 전기·가스 요금 인상 등으로 4%대 후반으로 크게 높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과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모두 3%대 초반으로 상승하였다.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5%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금년중 상승률도 2월 전망치(3.1%)를 크게 상회하는 4%대 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중 근원인플레이션율은 3%대 초반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가속,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큰 폭 상승하였고 주가는 하락하였으며, 장기시장금리는 상당폭 등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소폭 증

가로 전환하였고 주택가격은 보합세를 나타내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당분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성장·물가 흐름,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를 포함한 해외 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 ◇ 통화정책방향

(2022년 7월 13일, 제13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75%에서 2.25%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국내외 경기 하방위험이 증대되었지만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광범위해졌으며 단기 기대인플레이션도 크게 높아지고 있어 당분간 고물가 상황 고착을 막기 위한 선제적 정책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세계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성장세가 약화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가속과 그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로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되었다. 미 달러화가 강세를 지속하고 주가가 상당폭 하락하였으며 주요국 국제

금리는 큰 폭으로 등락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움직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의 방역조치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회복세를 이어갔다.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지속하였으며 설비투자는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고용 상황은 큰 폭의 취업자수 증가가 이어지는 등 개선세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겠지만 주요국 성장세 약화의 영향으로 수출이 둔화되면서 금년중 성장률이 지난 5월 전망치(2.7%)를 다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지속되고 여타 품목도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6%로 크게 높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과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모두 4%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6%를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금년중 상승률도 5월 전망치(4.5%)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상당기간 4% 이상의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시장에서는 장기시장금리가 국내외 정책금리 인상 기대로 상당폭 상승하였으며, 주가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에 영향받아 큰 폭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소폭 증가하고 주택가격은 보합세를 나타내었다.

□ 이같은 물가와 경기 상황을 종합해볼 때, 경기 하

방위험이 큰 것이 사실이나 아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지금은 물가 상승세가 가속되지 않도록 50bp의 금리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인상 기초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향후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는 성장·물가 흐름,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를 포함한 해외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 ◇ 통화정책방향 (2022년 8월 25일, 제16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25%에서 2.50%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국내외 경기 하방위험이 증대되었지만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압력과 기대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어 고물가 상황 고착을 막기 위한 정책 대응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세계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 선진국의 정책금리 큰 폭 인상 등으로 경기 하방위험이 증대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주요 가격변수가 큰 폭으로 등락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원자재가격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

움직임, 주요국의 경기지표와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소비가 회복세를 이어갔지만 주요국의 성장세 약화로 수출이 둔화되는 등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다. 고용 상황은 큰 폭의 취업자수 증가가 이어지는 등 개선세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낮아지면서 금년 및 내년 성장률이 지난 5월 전망치(2.7% 및 2.4%)를 하회하는 2.6% 및 2.1%를 각각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농산물 및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6%대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3%대 후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4%대의 높은 수준을 각각 이어갔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낮아질 수 있겠지만 근원물가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상당기간 5~6%대의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및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치(4.5% 및 2.9%)를 크게 상회하는 5.2% 및 3.7%로 각각 전망된다.

□ 금융시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장 움직임 등에 영향받아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장기시장금리가 상당폭 하락한 후 반등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크게 높아졌다. 가계대출은 소폭 감소하고 주택가격은 하락세로 전환하였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 경기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대내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향후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정도, 성장 흐름, 자본유출입을 비롯한 금융안정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 ◇ 통화정책방향

(2022년 10월 12일, 제19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 상승으로 인해 물가의 추가 상승압력과 외환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정책대응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세계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 미 연준의 긴축 기조 강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졌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달러화 강세 기조 강화로 주요국의 통화 가치가 절하된 가운데 장기시장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하였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금융불안이 나타났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 시장은 국제원자재가격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 향방,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미 달러화 움직임,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소비가 회복 흐름을 이어갔지만 수출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고용 상황은 큰 폭의 취업자수 증가가 이어지는 등 개선세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2.6%)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내년은 지난 전망치(2.1%)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개인서비스 및 가공식품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5%대 중후반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과 기대인플레이션율도 4%대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환율 상승의 영향 등이 추가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상당기간 5~6%대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및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치(5.2% 및 3.7%)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경기 둔화에 따른 하방압력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 주요 산유국의 감산 등으로 상방 리스크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 금융시장에서는 미 달러화 강세와 엔화, 위안화 약세 등에 영향받아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하고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순유출되는 등 외환 부문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장기시장금리는 큰 폭 상승하였고 주가는 크게 하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소폭 감소하고 주택가격은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 경기가 둔화되고 있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을 크게 상회하

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인상 기초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향후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정도, 성장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자본유출입을 비롯한 금융안정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 ◇ 통화정책방향

(2022년 11월 24일, 제22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00%에서 3.25%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높은 수준의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어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인상폭은 경기 둔화 정도가 8월 전망치에 비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환부문의 리스크가 완화되고 단기금융시장이 위축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0.25%p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세계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 및 주요국의 정책 금리 인상 지속,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졌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로 위험회피심리가 일부 완화되면서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으며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원자재가격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 향방,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미 달러화 움직임,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소비가 회복 흐름을 이어갔지만 수출이 감소로 전환하는 등 성장세 둔화가 이어졌

다. 고용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둔화되었지만 낮은 실업률 수준이 이어지는 등 양호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2.6%)에 부합하겠지만, 내년은 지난 전망치(2.1%)를 상당폭 하회하는 1.7%로 전망된다.

□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기·가스요금 인상, 가공식품 가격 상승 폭 확대 등으로 10월에도 5.7%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과 기대인플레이션율은 4%대 초반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기저효과, 경기 둔화 영향 등으로 상승률이 다소 낮아지겠지만 5% 수준의 높은 오름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및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치(5.2% 및 3.7%)를 소폭 하회하는 5.1% 및 3.6%로 전망되지만,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전기·가스요금 인상폭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국 통화긴축 속도 조절 기대 등으로 장기 국고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주가가 상승하였지만, 단기금융 시장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담보부 기업어음(PF-ABCP) 등의 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거래도 위축되었다. 가계대출은 소폭 증가에 그쳤고,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향후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정도, 성장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금융안정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 ◇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2022년 12월 22일, 제24차)

### 1.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여건

#### 1. 대외 여건

•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크게 약화되었으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점차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

□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지속 등으로 성장세가 크게 약화될 전망

○ 미국은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유로지역은 에너지 수급불안이 지속되면서 경기침체 가능성이 증대

— 중국은 제로코로나 정책 영향, 부동산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경기 부진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

○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주요국 통화긴축 감속, 중국의 방역정책 완화 등으로 글로벌 경기 부

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

□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주요국 경기가 둔화되면서 점차 낮아지겠지만, 높아진 에너지가격 등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높은 수준을 이어갈 전망

## 2. 경제성장

•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취업자수도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

□ (성장) 국내경제는 상반기까지 글로벌 경기 둔화에 주로 기인하여 잠재수준을 하회하는 성장흐름을 보일 전망

○ 소비는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금리 상승 등으로 그 속도가 점차 완만해지겠으며 수출과 투자는 주요국 성장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부진할 전망

○ 하반기 이후에는 대외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부진이 점차 완화될 전망

○ 향후 성장경로 상에는 주요국 통화긴축 속도, 지정학적 갈등 전개양상 및 중국 방역정책 변화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

□ (고용) 취업자수는 팬데믹 이후 리오프닝에 따른 효과가 사라지고 경기둔화의 영향이 나타나면서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

○ 이에 따라 실업률은 상승하고 고용률은 소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

## 3. 물가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 중반, 근원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을 각각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2023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 중반을,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에너지 제외)은 2%대 후반을 각각 나타낼 것으로 예상

○ 공급요인의 기저효과,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올해보다 낮아지겠지만

그간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의 가격 전가(전기·가스요금, 가공식품, 근원품목 등) 등으로 내년 중에도 목표 수준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지속할 전망

□ 향후 물가경로 상에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 변동, 원/달러 환율 움직임,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폭,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4. 금융·외환시장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높은 변동성이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지속 전망, 부동산 관련 자금시장의 신용경계감 등을 고려할 때 자본유출입과 주요 가격변수의 높은 변동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

○ 부동산 경기 둔화폭이 예상보다 커질 경우 부동산 PF 대출 등 관련 자금시장 불안이 재심화될 가능성

○ 글로벌 달러화 유동성 축소 지속, 주요국 경기 둔화폭 확대에 따른 글로벌 투자심리 회복 제약 등이 외환부문의 리스크 요인으로 상존

○ 다만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큰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부동산 경기 위축이 심화될 경우 유동성 위험에 노출될 우려\*

\* (증권회사) 부동산 PF 채무보증 이행 가능성, (여신전문회사) 여전채 발행 여건 악화 가능성, (저축은행)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에 따른 수신 이탈 가능성 등

○ 아울러 높은 대출금리, 자산가격 조정 등의 영향으로 취약부문의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질 가능성

5. 금융시스템

• 금융시스템은 안정성을 유지하겠지만,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 리스크는 증대될 가능성

□ 한편 금융기관 대출은 부동산시장 부진,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금년에 비해 증가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

○ 가계대출은 주택거래 부진, 높은 금리수준 등으로 소폭 감소하고, 기업대출은 경기둔화 우려,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 금융시스템은 금융기관의 높은 자본비율 등을 고려할 때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각 업권별 자본비율(22.3/4분기말 기준, %)

일반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	저축은행	생명보험	증권
16.7	8.4	17.8	12.9	200.1	708.4
(10.5)	(2.0)	(7~8)	(7.0)	(100)	(100)

주: 1) 일반은행은 BIS기준 총자본비율, 상호금융은 순자본비율, 여신전문회사는 조정자기자본비율, 저축은행은 BIS자기자본비율, 생명보험은 RBC비율, 증권사는 순자본비율 기준  
2) ( )내는 규제 비율

자료 : 각 기관 업무보고서



## II. 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 기준금리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해 나갈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운용 기조를 지속
-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 및 파급영향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
- 금융·외환시장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
- CBDC 도입과 관련한 기술적·제도적 연구를 강화하고 다양한 활용 사례를 실험
-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

### 1. 기준금리 운용

-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운용 기조)** 기준금리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0%)으로 수렴해 나갈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운용 기조를 지속
  -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목표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내년 중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고려
- **(높은 불확실성에 유의하여 운용)** 이 과정에서

최종 기준금리 수준, 동 수준의 유지 기간 등은 물가 흐름과 함께 경기, 금융·외환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결정

- 내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중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외 경기 둔화폭, 주요국 통화정책,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누증된 비용 상승압력의 전가 정도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2.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 **(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 경제주체들이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경제전망,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
  - 심층연구 수록, 시나리오 분석 등 경제전망 보고서의 내용을 확충
  - 의결문 개선,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내용 내실화 등을 통해 정책결정 배경, 향후 정책방향 등을 보다 충실하게 설명
    - 주요국 포워드 가이드의 효과 등을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
- **(공개시장운영 유효성 제고)** 통화신용정책이 원활하게 파급될 수 있도록 공개시장운영의 유효성 제고 노력을 지속
  - 통화안정증권 중도환매 대상증권 확대(1·2년물→1·2·3년물), 증권대차 담보증권 확대 등

□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한 연구·분석 강화) 높아진 금리 수준 및 부채부담 하에서의 통화정책 파급효과, 물가 동학 변화 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분석을 강화

○ 정책기조별·부문별 비선형적 파급 가능성 등 그간의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 가계부채 누증 등이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정책효과 제고 방안을 연구

○ 팬데믹 이후 성장·물가간 관계, 추세 인플레이션 등 물가 동학의 기초적 변화 가능성을 점검

○ 고빈도 미시 데이터를 활용한 경기 지표, 금융 시장 유동성 지표 등을 신규 개발하는 등 정책 판단 참고지표 확충을 지속

3. 금융안정 도모

□ (금융시장 및 금융시스템 안정 노력 지속) 경기 둔화, 국내외 금리 상승, 부동산 경기 부진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잠재위험 요인이 현재화될 가능성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

○ 시나리오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여 시장 불안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시행

— 현재 시행중인 조치\*는 지원효과와 단기 금융시장 회복 정도 등을 점검하면서 연장

\*대출 적격담보증권·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의 확대, 단기금융 시장안정 및채안펀드 출자 금융기관 지원을 위한 RP매입 등

○ 가계부채 리스크, 부동산 PF 대출 부실,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신용 리스크 증대 등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가계부채 구조개선 및 부동산 익스포저에 대한 건전성 관리 방안 등도 모색

○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 정책당국과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긴밀한 정책공조를 지속

— 한국주택금융공사 추가 출자 등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정부와의 정책협력을 이어나갈 계획

□ (외환시장의 변동성 재확대 가능성에 대비) 국내 외환부문의 취약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환율의 과도한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안정화 조치를 통해 대응

○ 외환시장과 금융시장 간 상호연계성 확대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

—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외환수급의 안정화 및 외환시장·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 대외충격 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만기도래 통

화스왑\* 연장,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금융협력 등을 추진

\* 말레이시아(2.2일), 호주(2.5일) 및 인도네시아(3.5일)의 만기가 도래

— MF의 쿼타 일반검토(제16차\*), 다자간 통화스왑(CMIM)의 유효성 제고 논의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

\*2023년중 증액여부, 회원국간 배분비율(증액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

□ **(기후변화 대응 강화)** 기후변화에 따른 금융경제 리스크 분석을 강화하고 정책적 대응 노력을 지속

○ 기후리스크 평가를 위한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하고 대내외 친환경 정책에 따른 영향 분석, 지속가능금융\* 관련 조사·연구 등을 강화

\*민간의 온실가스배출 감소 및 적응을 지원하는 ‘기후금융’ 이외에도 자원·에너지 효율 제고와 환경개선을 위한 상품·서비스 생산을 지원하는 금융을 포괄

○ 외화자산 운용시 친환경 부문 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여신제도(대출, 담보 등)와의 연계 방안을 모색

#### 4.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

□ **(CBDC 도입 기반 강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도입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기술적·제도적 이슈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대내외 협력을 강화

○ 아울러 국내 유관기관, 민간부문, 국제기구 등과 함께 다양한 활용 사례를 실험

□ **(지급결제 효율성 제고)** 금융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글로벌화에 대응하여 지급결제 인프라 개선 노력을 지속

○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은행 지급결제서비스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제고

○ 해외송금 비용을 낮추고 속도를 높이는 등 국가 간 지급서비스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국외 지급결제 인프라와의 연계를 추진

□ **(지급결제 안전성 강화)** 지급결제 혁신 흐름 속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시기능도 강화

○ 빅테크 등 새로운 지급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급결제 제도 안전성 확보 노력 지속

○ 지급수단으로 활용가능성이 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내외 규제·감시 논의에 적극 참여

#### 5.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

□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실효성 제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개편

-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개선, 대출금리 경감, 지역중소기업 지원 현황 등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용의 전반적인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 프로그램 및 총한도 조정, 지역별 한도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

□ **(대출담보제도의 효율적 운용)**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범위의 적정성 점검과 담보위험 관리체계 개선 노력을 지속

- 한시적으로 확대된 적격담보증권의 유동성 및 가격 변동성 등을 점검하면서 필요시 담보 인정비율 조정 등을 검토

##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한국은행법은 통화신용정책의 목적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며,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 목표와 기본방향 하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및 유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 **(물가안정목표제)**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핵심 목적인 물가안정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며, 현재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이다.

○ **(중기적 운영 시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통화신용정책 외에도 다양한 대내외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물가안정목표는 일시적·불규칙적 요인에 따른 물가변동, 통화신용정책의 파급시차 등을 고려하여 중기적 시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 **(미래지향적 운영)** 물가상승률이 중기적 시계에서 목표수준에 수렴하도록 통화신용정책을 미래 지향적으로 운영하되,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거나 하회할 위험을 균형있게 고려한다.

— 물가안정목표 수준으로의 수렴 가능성은 물가 및 성장 전망과 더불어 전망경로 상의 불확실성 및 위험요인, 인플레이션 기대의 안착 정도, 금융안정 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 **(신축적 운영)** 중기적 시계에서의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물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한다.

□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금융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통화신용정책 운영시 금융안정 상황을 신중히 고려한다.

○ **(금융시장 안정 노력)** 금융불안 발생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제약되고, 거시경제의 안정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 안정 및 중개기능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 **(금융불균형 유의)** 부채 누증 등 지속적인 금융불균형은 궁극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이에 유의한다.

—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공표하여 통화신용정책 운영이 금융불균형의 과도한 누적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신용정책만으로 금융안정을 추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불균형 누적 억제를 위해서는 통화신용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조화롭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 (2) 통화신용정책 의사록 전문

### QR BOX



#### QR 1

2022년도 제1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22년 1월 14일)



#### QR 2

2022년도 제4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22년 2월 24일)



#### QR 3

2022년도 제7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22년 4월 14일)



#### QR 4

2022년도 제10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22년 5월 26일)



#### QR 5

2022년도 제13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22년 7월 13일)



#### QR 6

2022년도 제16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22년 8월 25일)



#### QR 7

2022년도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22년 10월 12일)



#### QR 8

2022년도 제22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22년 11월 24일)

### (3) 통화신용정책업무 주요 내용

#### ◇ 2022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 결정 (2022년 1월 14일, 제1차)

##### 1. 대출금 한도, 상환기한 및 이율 등은 다음과 같다.

###### 가. 대출금 한도 및 상환기한

대출구분	회계별	대출금한도 (억 원)	상환기한	기타
일시대출금	통합계정	400,000	2023년 1월 20일	대출취급기한: 2022년 12월 31일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단, 2023년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공공자금관리기금	80,000	2022년 12월 31일	
합계		500,000		

나. 이율은 분기별로 “직전분기 말월중 91일물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를 더한 율로 한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통화안정증권(91일물) 수익률의 단순평균으로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다. 대출형식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대출금 한도와 대출취급기한 내에서 정부의 일시차입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한도 및 조건 등을 확인한 후 신용대출로 취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 2. 부대조건

가. 정부는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앞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나.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이 구조적인 부족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 정부는 차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차입시기, 규모, 기간 등에 관해 사전에 한국은행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3. 위임사항 : 건별 대출의 실행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임한다.

4. 시행일자 : 2022년 1월 14일(금)

####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결정 (2022년 3월 24일, 제6차)

□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할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한도는 현재의 43조원에서 3.2조원 감액한 39.8조원으로 하고 이에 따른 프로그램별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한도는 현재의 3.5조원에서 3.2조원 감액한 0.3조원으로 한다.

○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한도,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 한도 및 지방중소기업지원 프

로그래밍 한도는 현재의 규모를 유지한다.

- 한도 유보분은 2023년 11월 30일까지는 19.1조원을 유지하되, 2023년 12월 1일부터는 0.1조원으로 한다.

####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 개정(2022년 4월 14일, 제7차)

-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는 연 0.25%에서 유지하고

여타 상시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를 연 0.25%에서 연 0.50%로 인상하여 2022년 5월 2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 개정(2022년 5월 26일, 제10차)

-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상시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를 연 0.50%에서 연 0.75%로 인상하기로 하였음(2022년 5월 26일부터 시행)

- 다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는 연 0.25%에서 유지하기로 하였음

#### ◇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제1회 대출금 재대출(만기 연장) 실시 (2022년 6월 22일, 제12차)

##### 1. 대출금액: 1조 1,580억원 이내\*

\*2021.7.23일 실시한 제1회 대출금 재대출금액

1조 1,580억원에서 금번 재대출취급일 전까지 조기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 기준

##### 2. 대출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일정 스프레드를 가산한 금리

-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가산하는 스프레드는 통안증권(1년물) 금리\*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차이\*\*로 하며, 해당 값이 0보다 작을 경우에는 0으로 함

\* 4개 민간채권평가사(KIS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평균 기준

\*\* 대출실행일 직전 5영업일간의 산술평균 값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3. 대출기간: 재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 4. 대출담보: SPV 전체 자산

- 한국은행은 SPV가 보유한 회사채·CP, 한국은행 당좌예금 및 한국산업은행 수납관리예금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

- SPV는 대출취급일에 대출금 상당의 어음을 발행하여 한국은행에 제공

##### 5. 대출금 회수: 만기 일시 상환

- 중도 상환 가능

##### 6. 이자수취: 3개월마다 후취



## 7. 기타

-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 한도 및 조건 결정」(2020.7.17일, 금통위 의결) 및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 조건 변경」(2020.12.24일 및 2021.6.30일, 각각 금통위 의결)의 부대조건을 준용한다.
- SPV에 대한 대출 금액, 금리 및 취급일 등 세부사항은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다.
- 한국은행 총재는 본 대출의 실행후 그 내용을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 개정(2022년 7월 13일, 제13차)

-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상시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를 연 0.75%에서 연 1.00%로 인상하기로 하였음(2022년 7월 13일부터 시행)
- 다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는 연 0.25%에서 유지하기로 하였음

### ◇ 「공개시장운영규정」 개정 (2022년 7월 28일, 제14차)

- (주금공 MBS 대상증권 매매 범위 확대) 현행 환매조건부매매 대상증권으로 한정된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을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포함
- 주택저당증권을 환매조건부매매 대상증권으로 한정하는 단서 조항 삭제 (제4조제4호)

□ (대상증권의 위험관리) 주택저당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 대한 신용위험 관리 방안을 정비

- 주택저당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동 증권의 신용위험이 한국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변경 (제6조의2)

### ◇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기념주화 발행(2022년 8월 11일, 제15차)

1.발행화종: 50,000원화 2종(은화 2종)

2.발행물량: 화종별 7,000장씩 총 14,000장

3.발행 예정일\* : 2022.10.6일

\* 금년도가 한국스카우트 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인 점을 기념하여 2022년 중 발행

### 4. 화종별 규격

화종	액면	모양	재질 (%)	지름 (mm)	중량 (g)	테두리	품질 수준
은화 I	50,000 원	원형	은 99.9	33.0	15.55	툼니 모양	프루프
은화 II	50,000 원	"	"	"	"	"	"

## 5. 도 안

화종	앞면	뒷면
은화 I		
은화 II		

화종별 그림 및 문자

화종	구분	그림	문자
은화 I	앞면	잰버리 활동에 필요한 물품 (텐트, 나침반, 손전등, 드론)	2023 새만금·제25회 세계스카우트잰버리 2022·한국은행·오만원
	뒷면	대회 공식 캐릭터인 새버미	25th World Scout Jamboree 2022·BANK OF KOREA ·50000WON
은화 II	앞면	새만금 방조제 및 스카우트 대원	2023 새만금·제25회 세계스카우트잰버리 2022·한국은행·오만원
	뒷면	잰버리 대회를 산, 강, 바다 등으로 아이콘화, 한국 스카우트연맹 엠블렘	25th World Scout Jamboree 2022·BANK OF KOREA ·50000WON

## 6. 발행 및 판매방법

□ 당행이 한국조폐공사 앞 기념주화를 일괄 발행 하면 한국조폐공사가 그 판매를 대행

- 한국조폐공사는 기념주화 액면금액을 당행에 지급하여 기념주화를 인수하고 액면에 포장비 등 판매부대비용이 포함된 실비로 대국민 판매

- 일반 판매용의 경우 발행량(14,000장) 범위에서 국내분(90%, 12,600장)과 국외분(10%, 1,400장)으로 나누어 판매

- 국내분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을 받아 판매하며, 국외분은 한국조폐공사의 해외주문 접수를 반영하여 판매하되 미달시 국내분에 포함

## 7. 제조비

□ 기념주화 제조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행의 화폐 제조비 예산으로 지급

###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 개정(2022년 8월 25일, 제16차)

□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상시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금리를 연 1.00%에서 연 1.25%로 인상(2022년 8월 25일부터 시행)

- 코로나19 지원 관련 한시 프로그램은 예정대로 신규 지원을 종료하되, 기존 대출취급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 이내에서 만기까지 0.25%의 금리로 지원을 계속

###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 개정(2022년 10월 12일, 제19차)

□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상시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금리를 연 1.25%에서 연 1.50%로 인상\*하기로 하였음(2022년 10월 12일부터 시행)

- \* 다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기존 대출취급분에 대한 대출

금리는 만기까지 연 0.25%로 유지

###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개정 (2022년 10월 27일, 제20차)

□ 적격담보증권 한시적 확대 등

- 한국은행 대출의 적격담보증권을 확대\*하되, 금융기관의 자기 발행증권은 제외(제4조제1항)

\* 은행채# 및 9개 공공기관## 발행 채권

#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은행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채

## 국가철도공단,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확대된 적격담보증권의 적격성 인정기간은 2023년 1월 31일까지(3개월)로 함
- 기타 용어 정비(예금지급준비금 → 지급준비금)

### ◇ 「공개시장운영규정」 개정 (2022년 10월 27일, 제20차)

□ (대상증권 확대) 현행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에 다음의 증권을 추가

-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9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은행법」에 따른 금융채 (제4조 제1항)

- 다만 환매조건부증권(RP)매매 대상증권으로 한정 (제4조 제2항)

□ (대상증권의 위험관리) 당행의 신용위험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 자기발행채권 및 관계회사 발행채권은 매매 대상증권에서 제외 (제4조 제3항)
- 추가 선정된 대상증권의 신용위험이 한국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제6조의2)

###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개정 (2022년 10월 27일, 제20차)

□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의 예정\*된 인상 일정을 순차적으로 유예

\* 당행은 국제기준에 맞추어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동 인상 일정을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 명시한 바 있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 계획 변경

(%)

	현행	'23.2	'23.5	'24.2	'24.5	'25.2	'25.5
변경 전	70	80	80	90	90	100	100
변경 후	70	70	80	80	90	90	100

□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에 공공기관 발행채권(9종) 및 은행채를 추가

- 신규로 추가되는 적격담보증권은 제2그룹\*으로 구분하여 관리

\* 신용위험이 내포된 특정 담보증권을 과도하게 납입하여 편중리스크가 증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적격담보증권을 2개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신용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2그룹은 총 담보의 50% 이하로 제한

○ 적격담보증권 인정기간은 2023년 1월 31일 까지로 설정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 범위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 국제 - 통화안정증권 - 정부보증채 - 산업금융채권 - 중소기업금융채권 - 수출입금융채권 -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	- 국제 - 통화안정증권 - 정부보증채 - 산업금융채권 - 중소기업금융채권 - 수출입금융채권 -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
(추가)	- 농업금융채권 - 수산금융채권 - 일반 은행채 -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 * 국가철도공단,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 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 일부 적격담보의 유효기간 재설정

○ 2020.4.9일 개정 규정 부칙(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경과로 효력을 상실한 일부 담보증권\*에 대해 유효기간을 재설정

\* 당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금번과 동일한 범위의 적격담보증권 확대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동 조치는 2021.3.31일자로 종료된 바 있음

◇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22년 11월 10일, 제21차)

□ 디지털화 등 금융거래 환경 변화, 단기 예·적금에 대한 은행권과 소비자의 요구 증대 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 수신의 기타조건’을 개정

□ 정기적금 및 상호부금의 최단만기를 1개월로 단축

○ 이와 함께 해당 금융상품의 신규취급 중단(근로자주택마련저축 및 주택부금), 금융기관의 자율 규제(가계당좌예금) 등으로 관련 조건이 불필요해진 조항은 삭제

○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

◇ 누리호 발사 성공 기념주화 발행 (2022년 11월 10일, 제21차)

1. 발행화종 : 50,000원화 2종(은화 2종)





2. 발행물량 : 화종별 7,000장씩 총 14,000장

3. 발행 예정일 : 2022.12.20일

4. 화종별 규격

화종	액면	모양	재질 (%)	지름 (mm)	중량 (g)	테두리	품질 수준
은화 I	50,000 원	원형	은 99.9	33.0	15.55	톱니모양	프루프
은화 II	50,000 원	"	"	"	"	"	"

## 5. 도 안

화종	앞면	뒷면
은화 I		
은화 II		

화종별 그림 및 문자

화종	구분	그림	문자
은화 I	앞면	이륙하는 누리호와 발사대	누리호 발사 성공기념 2022 · 한국은행 · 오만원
	뒷면	우리나라의 발사체 발전과정, 태극문양과 '누리' 문구	Successful Launch of Nuri Rocket 2022 · BANK OF KOREA · 50000WON
은화 II	앞면	누리호 3단 엔진, 달 표면, 천상 열차분야지도의 별자리 일부	누리호 발사 성공기념 2022 · 한국은행 · 오만원
	뒷면	우리나라의 발사체 발전과정, 태극문양과 '누리' 문구	Successful Launch of Nuri Rocket 2022 · BANK OF KOREA · 50000WON

## 6. 발행 및 판매방법

- 당행이 한국조폐공사 앞 기념주화를 일괄 발행 하면 한국조폐공사가 그 판매를 대행
  - 한국조폐공사는 기념주화 액면금액을 당행에 지급하여 기념주화를 인수하고 액면에 포장비 등 판매부대비용이 포함된 실비로 대국민 판매
  - 일반 판매용의 경우 발행량(14,000장) 범위에서 국내분(90%, 12,600장)과 국외분

(10%, 1,400장)으로 나누어 판매

- 국내분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을 받아 판매하며, 국외분은 한국조폐공사의 해외주문 접수를 반영하여 판매하되 미달시 국내분에 포함

## 7. 제조비

- 기념주화 제조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행의 화폐 제조비 예산으로 지급

##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 개정(2022년 11월 24일, 제22차)

-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상시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를 연 1.50%에서 연 1.75%로 인상\*하기로 하였음(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

\* 다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기존 대출취급분에 대한 대출 금리는 만기까지 연 0.25%로 유지

## ◇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제2회 대출금 재대출(만기 연장) 실시 (2022년 12월 22일, 제24차)

### 1. 대출금액: 1조 7,800억원 이내\*

\* 2022.1.12일 실시한 제2회 대출금 재대출금액 1조 7,800억원에서 2023.1.12일 재대출취급전까지 조기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 기준

## 2. 대출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일정 스프레드를 가산한 금리

-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가산하는 스프레드는 통안증권(1년물) 금리\*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차이\*\*로 하며, 해당 값이 0보다 작을 경우에는 0으로 함

\*4개 민간채권평가사(KIS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평균 기준

\*\*대출실행일 직전 5영업일간의 산술평균 값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 한도 및 조건 결정」(2020.7.17일, 금통위 의결) 및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 조건 변경」(2020.12.24일 및 2021.6.30일, 각각 금통위 의결)의 부대조건을 준용한다.

- SPV에 대한 대출 금액, 금리 및 취급일 등 세부사항은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다.

- 한국은행 총재는 본 대출의 실행후 그 내용을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대출기간: 재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 4. 대출담보: SPV 전체 자산

- 한국은행은 SPV가 보유한 회사채·CP, 한국은행 당좌예금 및 한국산업은행 수납관리예금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
- SPV는 대출취급일에 대출금 상당의 어음을 발행하여 한국은행에 제공

## 5. 대출금 회수: 만기 일시 상환

- 중도 상환 가능

## 6. 이자수취: 3개월마다 후취

## 7. 기타

## (4) 금융안정회의 주요 내용

### ◇ 「금융안정 상황점검」 주요 논의 내용 (2022년 3월 24일, 제6차)

(1) 금융안정국장이 보고 제21호-「금융안정 상황 점검」에 대하여 보고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관련부서에서는 3월 16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여러 위원들은 금번 보고서에 대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체계적으로 잘 분석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다만 보고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통계 의의 및 기준, 시계열 범위 등에 대한 보완 설명 등 일부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일부 위원은 최근 금융안정상황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동 사태로 인해 주요국의 금리인상 폭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지면서 금융시장 충격이 축소될 가능성과 같은 간접적 영향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또한 일부 위원은 주요 이슈 중 '대외 충격 확산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의 취약성 점검 및 시사점'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복원력뿐만 아니라 자본손실 이전에 나타날 수 있는 유동성 문제는 없는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가계대출의 금리민감도 분석 및 시사점'에서 대출금리 변동폭뿐만 아니라 경기상황,

대출규제 등 다양한 요인들이 가계대출의 금리민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다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아울러 일부 위원은 '코로나19 전후 기업 금융지원 정책 효과 분석'에서 기업 금융지원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한계에 대해서도 보다 분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으며, 다른 위원은 금리인하에 따른 시장안정 및 대출접근성 제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DSR 규제에서 제외되는 집단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과 관련한 풍선효과 등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다른 위원들은 대출금리 상승이 자영업자의 유동성 상황에 미치는 영향, 자영업자중 취약차주의 업종별 현황 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수정·보완하였으며, 앞으로도 면밀한 분석 및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과제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하였음.

### ◇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주요 논의 내용(2022년 6월 22일, 제12차)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를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에서는 금번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과 핵심 점검사항, 그리고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금번 보고서에서는 기존 보고서 체계, 목차 등을 유지하되, 최근 대내외 여건 변화가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부문 잠재리스크의 현재화 가능성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아울러 소득별 또는 순자산 순위별로 구분해 가계 및 자영업자 차주의 취약성을 점검하였음. 또한 압호자산이나 비금융회사의 지급서비스 동향과 같은 새로운 금융안정 이슈와 관련해서는 최근 국내외 규제 관련 논의도 추가하였음. 현안 분석과 참고박스에서는 미 연준 정책금리 인상의 가속이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가계대출과 부동산시장 연계에 따른 가계의 부실위험 등을 점검하였음. 또한 민간부채 누증에 따른 금융불균형 축적 상황에 대해 여전히 경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신용의 부문별 유입현황, 대출규제 완화가 가계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 자영업자 대출의 채무상환위험,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필요성 등도 함께 살펴보았음. 아울러 탄소중립 추진 및 압호자산시장 확대에 따른 리스크 등 중장기적 시계에서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 요인도 점검해 보았음.

다음으로 6월 8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여러 위원들은 금번 보고서가 대외 리스크 점증, 금융지원 조치의 정상화, 기후변화·압호자산 관련 리스크 등 최근 부각되는 금융안정 이슈들을 균형있게 분석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또한 여러 위원들은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가 은행

의 대출을 어느 정도 제약하는지, 어떤 수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가 더 나은지 등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해줄 것을 제안하였음.

가계신용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가계부채와 주식시장과의 연계성을 살펴볼 때 최근 규모가 커진 기업공개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일부 위원은 기업신용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앞으로 금리상승 국면에서도 기업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다른 위원은 일부 업종의 기업대출을 보면 증가율 뿐만 아니라 규모 자체도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주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일부 위원은 자산시장과 관련하여 전월세시장에서 가격 오름세는 둔화된 반면 거래량은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부동산시장 가격과 거래량 지표의 움직임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기업신용이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현상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기업신용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데이터 제약 등으로 생산성 측정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다른 위원은 기업신용의 경우 금융기관의 자금공급 측면 이외에 기업의 자금수요 측면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음.



글로벌 리스크 증대가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가속,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중국 경기 둔화 가능성 등 각 요인이 어느 신흥국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지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여러 위원들은 보고서에 대한 독자의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개념이나 계량분석 모형, 시나리오 설정의 전제치, 분석범위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음.

#### ◇ 「금융안정 상황점검」 주요 논의 내용 (2022년 9월 22일, 제18차)

(1) 금융안정국장이 보고 제61호-「금융안정 상황점검」에 대하여 보고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관련부서에서는 9월 15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여러 위원들은 금번 보고서가 지난해 하반기 기준 금리 인상 이후 부각된 여러 금융안정 이슈들을 잘 분석하였다고 평가하였음. 또한 금융안정 상황 관련 동향을 핵심 키워드 위주로 간략히 서술하여 가독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감독원과의 공동 자료작성 등을 통해 분석의 정도를 제고한 점도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다만 일부 위원은 주요 이슈 중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과 관련하여,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책무는 무엇보다 시스템리스크를 파악하고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방향 제시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일부 위원은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는 대외자본유출입 관련 동향이 중요해짐에 따라, 금융안정 측면에서 이를 보다 자세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일부 위원은 금번 보고서에서 점검한 부문별 리스크 요인들이 어떤 연결고리를 통해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분석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와 함께 앞으로도 금융안정 상황 점검시 통화정책 기조의 영향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분석해 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일부 위원은 주요 이슈 중 '부동산PF 대출 현황 및 평가'와 관련하여 증권사, 여전사와 같이 수신기능이 없는 금융기관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 충격으로 이어질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들은 보고서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구체적인 통계를 추가하거나 참고문헌을 병기(併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수정·보완하였으며, 아울러 면밀한 분석 및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과제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하였음.

이어서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부동산PF 대출 현황 및 평가'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최근 은행들의 신규 부동산PF 대출 중단이 기존 PF대출의 만기연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아파트 등과 관련한 PF대출의 경우 통상 만기가 3년 정도이고, 브릿지론(bridge loan)은 만기가 약 1년 정도인데, 기존 PF대출의 경우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대출이 시행된 이후 가격 하방압력이 높아진 지역 위주로 만기연장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정확한 부분은 관계기관의 실사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첨언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전체 PF대출에서 비은행권 PF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가운데 이들의 잠재위험도 큰 것으로 평가되는 것과 관련하여, 비은행권의 대출 축소 움직임이 있는지 계속 파악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보고부서에서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 및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 증가 규모 등을 파악해왔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대출잔액과 금리상황을 반영하여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위원은 미국 정책금리의 터미널 레이트(terminal rate) 변화 등 대내외 상황이 크게 바뀌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부동산PF 대출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12월)」 주요 논의 내용(2022년 12월 22일, 제24차)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12월)」(안)을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에서는 금번 보고서의 작성방향 및 핵심 점검사항, 그리고 보고서 내 개편사항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금번 보고서에서는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강화, 자산가격 하락,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 최근 대내외 여건변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잠재리스크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현안 분석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부동산경기 둔화와 맞물려 코로나19 이후 가파르게 증가한 부동산 기업금융의 잠재리스크를 점검하였음. 아울러 환율상승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 파급경로를 식별하고, 그 영향을 평가해 보았음. 참고박스에서는 전세가격 하락 등 주택임대차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영향, 자영업자대출의 부실위험,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 리스크,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상황 등도 함께 살펴보고 관련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음. 이밖에 국제사회의 탄소중립정책 본격화 및 암호자산시장의 영향력 확대 등 중장기적 시계에서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도 점검해 보았음. 한편 금년 7월 실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대한 외부 독자 의견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현안 과제의 시의성, 분석 내용의 심도 등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한 반면, 여전히 난이

도가 높고 가독성이 다소 약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이를 반영해 금번 보고서에서는 기존 보고서 체계를 유지하되 요약 부분의 일부를 수정하였음. 중복된 내용을 줄이기 위해 요약 부분의 '개황'과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을 개관으로 통합하여 기술하였고,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 부문은 그래픽으로 처리하여 금융안정 주요 지표로 간소화하였음.

다음으로 12월 8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여러 위원들은 금번 보고서가 주요국 통화긴축 기조 지속 등 최근 부각되는 금융안정 이슈들을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분석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단기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들은 최근 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이 일부 제약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은 금리 상승 외에 우발적 신용사건 발생, 한전채·은행채 발행에 따른 회사채 시장 구축 효과 등이 가세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가계신용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들은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DSR이 크게 높은 것에 대해 가계부채DB를 통해 산출한 DSR은 차주가 실제 부담하는 DSR과 차이가 있음을 명확히 설명하여 우리나라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대외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또한 일부 위원은 최근 주택 임대차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부담 증대 측면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조달부담 완화 측면도 균형있게 기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음.

민간신용 관리방안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들은 자영업자 지원정책에 대해 향후에는 금융지원 확대보다는 코로나19 관련 지원정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잠재부실이 누증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다른 위원은 정상자주의 대출상환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환율이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환율상승과 하락시에 대칭적인 효과가 나타나는지, 환율상승의 영향이 비선형적인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보고서 개편 방향에 대해 위원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관련 부서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음.

이어서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지난 한 해 보고서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많이 충실해지고 참고박스 분석 수준도 훨씬 좋아졌다고 평가하였음.

## (5) 금융안정회의 의사록 전문

---

### QR BOX



#### QR 1

2022년도 제6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22년 3월 24일)



#### QR 2

2022년도 제12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22년 6월 22일)



#### QR 3

2022년도 제18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22년 9월 22일)



#### QR 4

2022년도 제24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22년 12월 22일)

### 3. 경제일지

#### (1) 통화·금융·재정

1.13	<p>▷ 정부,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인가 시 관계기관 협의절차 간소화, 등록제도 개선 지주회사 규제 합리화 등 경직적 규제를 개선하여 규제부담을 완화</li><li>○ 공모시스템 개선 및 상장리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상장리츠를 통한 접근성 강화</li><li>○ 개인투자자 증가에 따라 리츠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 증대에 따른 기관·개인을 구분하여 선택과 집중 방식의 투자자 보호 강화 추진</li></ul>
1.14	<p>▷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한국은행 기준금리 25bp 상향 조정(1.00% → 1.25%)</li></ul>
2.24	<p>▷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 수준(1.25%) 유지</li></ul>
3.11	<p>▷ 정부, 「용자보증 제공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업 추진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330건, 3,643억 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목표 대비 104%)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기여하였으며, 올해는 3,15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할 계획</li><li>○ 녹색보증사업의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산업기업)임</li><li>○ 발전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 산업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의 생산자금, 사업운영 자금을 위해 용자보증이 가능</li><li>○ 중소·중견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액의 95% 이내, 중소/중견기업 각 100억/200억 원 이내에서 보증지원이 가능</li></ul>
4.14	<p>▷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한국은행 기준금리 25bp 상향 조정(1.25% → 1.50%)</li></ul>

- 5.12 ▷ 정부, 「제2차 추경예산안 중 「금융부문 민생지원방안」 발표
- 금융위원회는 「금융부문 민생지원방안」으로 총 6개 과제에 대해 약 1.5조 원을 편성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정상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①채무조정(0.7조 원) ② 저금리대환(0.6조 원) ③맞춤형 자금 지원(1,200억 원)
  - 서민·청년 등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④저소득 청년층 대출(햇살론유스) 공급확대(150억 원) ⑤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480억 원)
  - 주거 실수요자의 고금리 부담 완화 및 대출구조 개선을 위한 ⑥안심전환대출(1,090억 원)
- 5.26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
- 한국은행 기준금리 25bp 상향 조정(1.50% → 1.75%)
- 7.13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
- 한국은행 기준금리 50bp 상향 조정(1.75% → 2.25%)
- 8.25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
- 한국은행 기준금리 25bp 상향 조정(2.25% → 2.50%)
- 10.12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
- 한국은행 기준금리 50bp 상향 조정(2.50% → 3.00%)
- 11.10 ▷ 정부,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 발표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①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관계부처 합동), ② 규제지역 추가 해제 방안(국토부), ③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국토부) 등 다음 내용을 발표
  -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해제
  - 내년 초로 예정되었던 규제지역내 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투과과열지구 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
  -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공급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보증을 추가 공급하는 등 정상 추진 중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을 강화
  - 금리상승 등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경우 은행권의 채무조정 활용 및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11.24

-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
  - 한국은행 기준금리 25bp 상향 조정(3.00% → 3.25%)

12.21

- ▷ 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및 <부동산시장 연착륙 방안> 발표
  - 정부는 대통령 주재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
    - 경제운용 4대 기조(자유·혁신·공정·연대)하에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하여, 거시경제 안정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 등을 추진
  - 한편,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규제를 정상화
    - 취득세 증가 완화, 양도세 증가 배제, 분양 및 주택·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규제를 해제 및 LTV 상한을 30%로 적용
    - 규제지역을 2023년 초에 추가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지역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5년 이전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 예정
    - 정비사업 규제 개선·사업성 제고 등으로 공급기반 위축을 방지하고, HUG 부동산 PF 보증확대(+5조원) 및 미분양 PF 보증 신설(5조원)을 조기 시행(2023년 1월)
    - 2020년도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등록 재개,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차시장의 장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육성

## (2) 무역·외환

2.25

- ▷ 정부, 「미국의 대(對)러 수출통제 강화 조치」 발표
  -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의 품목·기술의 대(對)러 수출을 미국 독자적으로 추가 통제
  - 대(對)러 수출허가가 필요한 품목의 허가 심사 시, 거부정책(policy of denial)을 적용
  - 러시아 국방부를 포함하여 군사용과 관련된 49개의 기업 등을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추가 등재하여 모든 전략물자의 수출을 제한
  - 특정 미국산 기술·소프트웨어(SW)를 활용한 제3국 생산제품에 대한 역외통제(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실시

- 4.13 ▷ 한국은행, UAE 중앙은행과 통화스왑 연장계약 체결
- 양국은 통화스왑이 상호협력 강화에 기여해왔다는 인식을 공유하였으며 통화스왑을 안정적인 유지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확대 연장(3년→5년)
- 9.22 ▷ 산업통상자원부, 한-캐나다 기업 간 「핵심광물 협력 업무협정(MOU)」 서명식 개최
- 글로벌 공급망의 필수소재인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새로운 투자국으로 떠오르는 캐나다와의 협력 확대를 추진하여 9월 22일(목) 캐나다 토론토에서 양국 기업 간 공급망 협력 업무협정(MOU) 서명식을 개최
  - 동 서명식에서는 한국 LG에너지솔루션-캐나다 기업 간 리튬과 코발트 등 핵심광물 공급 및 가공 분야 협력 MOU 3건, 광해광업공단-캐나다 천연자원부 간 핵심광물 정보교류 및 기술개발 협력 MOU 등 총 4건의 업무협정(MOU)가 체결
  - 이번 MOU 체결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여 이차전지, 전기차 분야에서 핵심광물 원료-소재부품-최종제품까지 이어지는 우리 기업의 북미지역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데 의미
- 9.23 ▷ 외환당국(한국은행, 기재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거래 실시 합의
-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외환당국과의 외환스왑 거래를 통해 조달할 수 있게 됨
- 9.27 ▷ 국회, 한-이스라엘 및 한-캄보디아 FTA 비준동의안 본회의 통과
- 국회는 본회의에서 한-이스라엘 및 한-캄보디아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
  - 한-이스라엘 FTA는 2016년 5월 협상 개시(6차례 공식협상), 2019년 8월 최종 타결, 2021년 5월 정식 서명되었으며, 한-캄보디아 FTA는 2020년 7월 협상 개시(4차례 공식협상), 2021년 2월 최종 타결, 2021년 10월 정식 서명된 바 있음
  - 정부는 우리측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음을 이스라엘 및 캄보디아에 통보하고 발효 시점을 협의할 계획(정부는 연내 발효에 노력)



### (3) 산업·고용 및 기타

2.3

- ▷ 정부,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발표
  - 고용노동부는 미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전망치를 제시하는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발표
  - '30년까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134.4만 명)는 증가하지만 둔화되고, '15~64세'는 감소폭 확대(-320.2만 명)됨
  - '30년까지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74.6만 명)는 증가하지만 '2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15~64세'는 감소(-125.1만 명)함
  - 15세 이상 취업자는 '30년까지 98.4만 명 증가하나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25년을 정점으로 감소
  - 디지털 혁신으로 경제성장이 가속화되면서 '35년에는 기준전망보다 15.4만 명이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3.21

- ▷ 정부,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최대 50만 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
  - 2022년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
  - 본 사업은 2020년과 20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나, '22년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추경에 예산(95억 원)을 반영하여 시행
  -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관련으로 근로자 16만 6천 명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고, 돌봄비용 총 620억 원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함

6.28

-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발표
  - 지난해 일자리사업은 30.5조원(본예산), 24개 부처 228개 사업이며, 실업소득유지·지원(12.5조), 고용장려금(8.4조), 직접일자리(3.2조)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고용 유지지원과 생계 안정에 주력
  - 적기 재정투입과 다양한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코로나19 고용위기에 적극 대응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사업 간 유사·중복성 등 직접일자리 구조조정, 반도체 등 신산업분야 인재양성 확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LMP)의 취·창업 기능 회복 등이 보완사항으로 지적

- 2021년 일자리사업 228개 중 207개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가 보고서를 마련했으며, 이 중 169개 사업에 대해 등급 부여
- 성과평가가 결과 및 경기전망,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 사업의 적정규모 유지, 고성과 사업 중심의 효율화, 반도체 등 신산업분야 인력공급 및 기업혁신 지원확대, 취업·창업 지원, 고용안전망 강화, 일자리 사업 관리체계 효율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

## 7.7

- ▷ 산업통상자원부, 「'22년 상반기 조선업 수주실적 세계 1위를 탈환」 발표
  - 정부는 2022년 상반기 전 세계 발주량 2,153만 CGT 중 국내 조선업계가 45.5%(979만CGT)를 수주하여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발표
  - 우리나라는 2018년도 이후 4년 만에 상반기 수주실적 세계 1위를 탈환
  - 코로나19 이연수요로 선박 발주가 급증하였던 지난해를 제외하였을 경우, 2011년 상반기(1,036만 CGT) 이후 최고 수주량
  - 선종별로는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선도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선박에서 전 세계 발주량 1,114만 CGT 중 62%에 해당하는 692만 CGT를 국내 조선업계가 수주하여 이번 성과 달성을 주도함
  - 발주 비중이 지속 상승 중인 친환경 선박의 경우에도 전 세계 발주량(1,372만 CGT) 중 58%(798만 CGT)를 우리나라가 수주
  - 국내 조선사의 2022년 6월 말 현재 수주잔량은 3,508만 CGT로 전년동기(2,737만 CGT) 대비 28% 증가

## 8.5

- ▷ 정부,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고시
  - 고용노동부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전년 대비 +460원)으로 고시
  -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
  - 고용노동부는 7월 8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18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
  - 동 기간 동안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4건의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수용

## 10.7

- ▷ 고용노동부,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 발표
  -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진단하고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 일자리사업 혁신계획을 발표

- 지역단위 일자리정보에 관한 '지역일자리맵(MAP)' 구축 및 '지역고용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를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소통을 위한 일자리 핫라인으로 활용하는 등 중앙정부 주도의 일자리정책 및 사업을 과감히 분권화
-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통해 지역별 일자리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고용위기지역」 제도를 지역별 위기특성 등을 고려한 단계별 지원체계로 전환

## 11.5

### ▷ 정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구성

- 정부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및 첨단산업 육성경쟁에 대응하여 범정부 첨단전략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
- 위원회는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정부 부처들과 함께, 경제단체,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향후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전략을 정립해 나갈 예정
- 한편,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시행(올해 8월 4일) 직후부터 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관계부처, 기업, 협·단체 등으로부터 총 9개 산업, 43개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요를 접수하였으며, 이중 초격차 확보 및 기술·인력 보호가 필수적인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대 산업, 15개 첨단전략기술분야를 우선 선정
- 향후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선도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및 대학·연구소 등 첨단전략산업 생태계를 중점지원하기 위해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입지확보,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 인허가 신속처리, 기술·인력·금융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추진할 계획

## 11.9

###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전략 추진단 회의」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석탄회관에서 관계부처 및 원전 유관기관과 함께 원전수출전략 추진단 회의를 개최
- 금번 회의에서는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3년 만에 원전 노형 수출의 전기를 마련한 폴란드 폰트누프 원전 개발계획 수립 의향서 체결 후속조치 등을 집중 논의
  - 한수원은 APR1400 기술기반 폴란드 폰트누프 원전 개발계획을 연말까지 차질없이 수립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예상 공정, 재원조달, 사업관리 등 상세계획을 마련할 계획
  - 또한, 이집트 엘다바 원전 프로젝트는 내년 1월 현장 건설소 발족을 목표로 사업 수행인력을 선발하는 한편, 국내원전 업계에 일감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실시할 계획

## 4. 부문별 담당 부서 및 집필자

연차보고서 세부 부문	집필자	
<b>I. 경제 동향</b>		
1. 실물경제		
가. 세계경제	조사국	박세준, 이승주
나. 국내경제	조사국	박성하, 이규환, 이혜경, 이승호, 한채수, 최열매, 김혜림, 이현서
2. 금융·외환시장		
가. 국제금융시장	국제국	권나은
나. 국내금융시장	금융시장국 국제국	류창훈, 박다연 이승우, 정다영
<b>II. 업무 현황</b>		
1. 전략 수립 및 추진	기획협력국	배석진
2. 통화신용정책		
가. 물가안정목표	조사국	채민석
나. 기준금리	통화정책국	정동재
다. 공개시장운영	금융시장국	당의증
라. 여수신	통화정책국	문동규
마.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금융업무실 통화정책국 금융통화위원회실 커뮤니케이션국	강태현, 정영숙, 정준영, 한정희 정동재 이예지 고민지, 김형준
3. 금융안정		
가. 거시건전성 분석 및 평가	금융안정국	정천수, 유현주, 이해인, 이승엽, 이정국
나.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	금융시장국 통화정책국	당의증 문동규
다. 외환시장 안정조치	국제국	배준호
라. 중층적 금융안전망 확충	국제협력국	김보경
마. 금융불안 요인 발생 시 비상대응 체제 가동	금융시장국	류창훈, 박다연
4. 발권		
가. 화폐 발행	발권국	장석환, 강석창, 이창민
나. 화폐 유통	발권국	이창민, 황후남, 배정민
다. 대외 협력	발권국	이창민, 장석환, 이병록
5. 지급결제		
가. 한은금융망 운영	금융결제국	김덕형
나. 감시 및 리스크 관리	금융결제국	김덕형
다. 지급결제제도 개선	금융결제국	김덕형
라. 지급결제 관련 국제협력	금융결제국	김덕형

**연차보고서 세부 부문**

**집필자**

6. 외환 및 국제협력		
가. 외국환	국제국	이승우, 정다영, 김지훈
나. 외화자산 운용	외자운용원	최정은
다. 국제협력	국제협력국	김보경
7. 조사통계		
가. 조사연구	조사국	조병수, 진형태, 정영철
	경제연구원	김민정
	기획협력국	김수림
나. 통계	경제통계국	오권영, 이다연
8. 국고 및 증권		
가. 국고	금융업무실	천재정
나. 증권	금융업무실	조영화
다. 기금관리	금융업무실	조영화
9. 대외 커뮤니케이션		
가. 커뮤니케이션 강화	커뮤니케이션국	고민지, 김형준, 설범영, 정유진
	기획협력국	권태호
나. 경제교육 활동 강화	경제교육실	김윤경

**III. 경영 상황**

1. 조직 운영		
가. 조직 체계	기획협력국	유 리
나. 조직 운영방식	기획협력국	유 리, 민다한
다. 교육훈련	인재개발원	김현희
라. 인력 운영	인사경영국	노정우
마.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확산	윤리경영실	임스런
바. 디지털 혁신을 통한 업무 역량 및 효율성 강화	디지털혁신실	조천희
사. IT시스템 개선·확충	IT전략국	김상명
아. 통합별관 건축 추진	별관건축본부	이새롬
2. 재무 현황	기획협력국	차전영, 박상은

**부록**

1. 한국은행 개요		
(1) 연혁 및 설립목적	통화정책국	안지훈
(2) 조직		
가. 금융통화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실	이예지
나. 집행간부 및 감사	비서실	손달호
다. 부서조직 및 소관업무	기획협력국	유 리
라. 조직도	기획협력국	유 리
2.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의결 및 논의사항	금융통화위원회실	이예지
3. 경제일지	조사국	이혜경
4. 부문별 담당 부서 및 집필자	커뮤니케이션국	김형준

<b>보고서 작성총괄</b>	커뮤니케이션국	김봉기, 고민지, 김형준
-----------------	---------	---------------